

## 하나님을 발견하자!

사도행전 17장 27절

할렐루야, 오늘도 노원 주사랑교회에 오신 우리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곧 있으면 마하나임 실을 다시 사용할 수 있을거 같아요. 다시 10시 30분으로 가고,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다. 그래도.. 유치등부실 괜찮지 않았나요? 고등학교 친구들은 오랜만에 초등부로 돌아간 느낌일 거 같은데, 찬양단도 다시 정상화 될테니 많은 기대를 가지진 말입니다. 우리 지난 주 뭐에 대하여 배웠지요? 맞아요. 세상을 다스리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 주시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지금 와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죄악마저도 우리가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하기 위해서는 선택을 잘해야 한다고 했어요. 세상의 것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택한 것인가에 대하여 말이예요. 어쨌든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발견하자’, 갑돌이가 대뜸 이런 질문을 하네요. “아니, 전도사님, 하나님이 무슨 신대륙이예요? 발견하게?” 하나님은 이미 태초에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창조를 통해서요. 과학, 예술, 종교, 신비 등을 통해 이미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일출 보러 간 적 있어요? 그런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오 장엄하다. 카~ 멋지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뭐 옛날 예술 작품, 다비드 상 이런거 보면 무슨 생각이 드나요? 멋지다. 잘생겼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아니면 컴퓨터나 휴대폰 등 현대기술을 보면 감동이 들지 않아요? 지난 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레고를 모두 조립하고 나면 뿌듯한 마음이 들지 않아요? 이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을 일상의 것 혹은 그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본인을 드러내셨어요. 로마서 1장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세상에서 태어난 것부터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징표입니다. “나 하나님 몰라요!”하는건 다 핑계라고 20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자연, 예술, 문학, 기술만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해석해보면,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는 아버지, 즉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태초에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도 옆에 계셨고요. 하나님의 계시를, 명령을 직접 받으신 분이기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직접 보내심을 받은 분이시고 죄에서 구원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직분인 왕과 제사장, 선지자 직분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갑순이가 이런 질문을 하겠죠. “아니, 전도사님, 그럼 구약은 예수님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을 몰라야 되는데 모세, 아브라함은 잘만 알던데요? 전도사님 뽕쟁이”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고,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언약들을 이루리라는 선지자들의 말과 신학적 작품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이번엔 갑돌이 강아지가 질문해요. “왈왈 그럼 지금 왈왈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왈왈, 지금은 어떻게 아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성경이 있어요. 이 성경에 구약신약 심지어 계시록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부분이라도 알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더욱더 사랑하고 읽기에 정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분이 우리 맘속에 계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 지혜를 계속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우릴 만드신 이유, 세상을 만드신 이유가 본인을 자신의 피조물에게 드러내시고요, 또한 영화와 영광을 누리시기 위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와야 하고요, 수련회에 가야되는 겁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하나님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시면 항상 기업과 유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전에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저 천국 보좌에 우리의 자리를 마련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감사해서, 사랑해서 더욱 더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요즘 친구들이 쇼츠나 릴스에 빠져 책 읽기 힘들어 하는거 잘 알아요. 그렇다면 만화 성경이라도 제발 읽거나, 믿음은 들음으로써 생겨나는 거니까, 설교에 집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고요. 저렇게 즐기고 떠돌고 하는거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세요. 수련회에 참가하면 매우 좋아요. 3일 동안 쉬운 훈련을 받을 수 있어요. 3일 동안 노는 것처럼 훈련 받다 보면 여러분들의 30년이 분명 바뀝니다. 이 3일이 아까워서 안 가면. 30년동안 사회나 가정에서 뻥세게 훈련받고 3일만 바뀔 겁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선한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면요. 세상은 언제나 그런 걸 캐치해서 여러분들과 하나님을 영영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인을 이미 성경과 여러분 주위의 것들로 드러내셨어요. 그러니까 성경 열심히 읽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친구들 되길 바라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을 전하는, 수련회, 교회에 친구들을 전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